

景玉 李篋의 서원교육관과 그 시대적 의미

서신혜*

|| 차례 ||

1. 들어가며
 2. 경옥 이보의 서원교육관
 3. 이보 서원교육관의 시대적 의미
 4. 나가며
- 참고문헌

【국문초록】

이 글은 이보(1629~1710)의 삶과 서원교육관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그가 살았던 시기의 서원관련 동향에 관련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서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이황의 서원관만을 말하였을 뿐 문인들의 서원관을 다룬 글은 매우 드물었다. 이 논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남 문인 이보의 서원교육관을 읽음으로써 평범한 영남 선비들의 생각을 엿보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는 평소 유학의 진흥과 향촌의 教化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였다. 이보는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서원에 대한 생각, 당시 서원을 둘러싼 움직임과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서원설」을 지었다. 그는 이 글에서, 서원을 본래 세운 목적은 講學(학문 연마)에 있다고 말하였다. 옛날의 훌륭한 선비를 모셔 제사를 드리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비들을 권하고 흥기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선비를 학문적으로 일으키는 일만 한다면 제향에 조금 더 중점을 두더라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講學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였다. 또한 선비들이 이 서원을 통해 학문을 익히되 이때 익히는 내용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연구원

반드시 유교의 義理에 대한 학문이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서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의견을 드러내었다. 서원은 학문을 닦고 수련하는 장소이어야지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두고 변론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원이 정치적 싸움의 거점이 되었던 때이니만큼 이러한 의견 제시는 당시 士林 사회의 동향과 어지러움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숙종 이후 서원에 관한 온갖 문제가 사회 전면에 떠올랐다. 서원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 시기 퇴계학파의 인물들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해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모색하며 활동해 나갔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본래의 목적을 되새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보의 서원교육관은 그의 주장과 일치한다. 서원이 여기저기에 함부로 세워지는 시기에 서원 본래의 취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잘못되어 가는 사림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서원 관련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는 근본정신 회복을 말로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이었으므로 그들의 행동방식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이보, 서원교육관, 「서원설」, 講學, 이휘일, 祭享, 퇴계학파

1. 들어가며

이 글은 퇴계의 三傳 또는 四傳 문인으로 분류되는 景玉 李篋(1629, 인조7~1710, 숙종36)의 삶과 서원관련 활동이나 주장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그가 살았던 시기의 서원관련 동향에 관련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서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서원의 발생과 궤철, 향촌 내의 기능, 정치적 이용과 역할, 교육론, 서원소장 자료, 문인들의 활동 등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있다. 이중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

은 퇴계 학맥에 속하는 문인들의 서원관에 관해서이다. 그런데 뜻밖에 기존 연구성과물에서는 퇴계문인들의 서원관에 관한 연구를 찾아 보기 힘들다. 서원관을 다룬 글은 거의 대부분이 퇴계의 서원관¹⁾만을 말하였다. 문인들의 서원관을 다룬 글은, 寡聞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정만조²⁾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다. 교육학 관련 서적에서 개괄적으로 말하거나 퇴계학파의 사상을 考究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나갈 뿐 이 문제에 천착한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사실은 퇴계학파에 속하는 인물들이 스승인 퇴계가 세운 체계를 충실히 따르려 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는 거시적 시각일 뿐이다. 미시적으로는 퇴계학파의 서원관련 논의는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퇴계가 서원의 거의 모든 학문 수련을 자율에 맡기려 한 것에 비해 한강 정구나 높은 이광정은 상당한 강제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퇴계의 서원관을 살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 각 시대 문인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주장을 하였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물에 획기적 내용은 없을 지라도 조그마한 변화나 미미한 언급을 통해서 시대 동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평범한 士類들의 생각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남 문인 이보를 통해 서원교육관³⁾을 살피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1) 퇴계의 서원관을 다룬 연구물들은 매우 많다.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59~78면)를 비롯하여, 이범직, 「조선전기 서원의 교육기능」, 『한국사론』 8(국사편찬위원회, 89~114면)나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집문당, 1997, 49~81면) 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이다.

2) 정만조, 「퇴계학파의 서원(교육)론」, 『남명학연구』 9집(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183~206면. 김명균이 그의 학위논문 「높은 이광정의 학풍과 시세계」(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중 20~33면에서 그의 서원관을 잠시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3) 굳이 제목을 '서원교육관'이라 한 것은, 이보가 教化를 강조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書堂이나 書院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서원의 정상화를 위한 비판이나 제언 등은 사림들과 백성들의 '교육'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경옥 이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고 특히 서원에 관련하여 어떤 행적을 남겼는가를 대략 살필 것이다. 이후 그가 남긴 「書院說」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그가 남긴 문집의 여러 글들을 통해 서원에 관한 그의 생각을 추출할 것이다. 이를 시대 변화에 따른 서원관련 사실의 변화와 연결하여 그 의의를 살피겠다.

2. 경옥 이보의 서원교육관

1) 경옥 이보 삶의 軌跡과 教化를 위한 行적

이보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 간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⁴⁾ 그의 淵源과 삶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遺事」, 「墓碣銘」을 참고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보의 字는 信古이며 號는 景玉으로 본관은 眞城이다. 그의 9대조 禎은 퇴계의 증조가 된다. 이후 遇陽, 哲孫, 堦, 漢, 希聖, 逢春, 敬遵을 통해 부친 爾樟가 났다. 외조부는 張友程이며, 아내는 안동 권씨였다. 이보가 열 살 남짓 되었을 때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숙부인 寺正公 이회보에게 배웠다가 나중에 鶴沙 金應祖의 문하에 들었다. 1676년(숙종 2) 문과에 합격했으나 참석자들의 난동으로 罷榜되어 이후로는 과거를 단념했다. 1692년 司饗院 參奉이 되어 잠시 부임했으나 곧 사임했다. 만년에 大谷山에 집을 짓고 스스로 景玉山人이라 일컬었다. 독서와 시 짓기를 일삼

4) 경옥 이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많지 않다. 정순우가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18세기 서당연구」(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42~49면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경옥집』을 영인(퇴계학자료총서 40권)하면서 李源杰이 해제를 쓴 것이 전부였는데 최근 강현구가 경옥의 시세계를 살핀 논문을 살펴하여 그의 시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강현구, 「경옥 이보의 삶과 시」, 『안동한문학논총』 8집(안동한문학회, 2003), 129~148면.

으며 죽장망혜로 산과 골짜기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생을 마쳤다.

大司諫 金邦杰, 護軍 金泰基, 翊贊 李惟樟, 府尹 柳楮, 牧使 柳挺輝 등과 깊이 교유하였으며 이들 등 수십 명과 함께 老人會를 조직하여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逍遙暢敘하였다. 그는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다섯을 두었으므로 조카 龜徵으로 대를 이었다.

퇴계를 중심으로 그 師承관계를 살펴보면 ‘이황(1501~1570) → 이완(1512~1596) → 이회보(1594~1669) → 이보(김응조 문인)’로 정리할 수 있겠다.

행장과 문집 내 여러 글의 내용으로 보아 그는 매우 강직한 성품을 지닌 원칙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소 유학의 진흥과 향촌의 教化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였다. 『경옥집, 附錄』에 실린 「遺事」 중 한 대목이다.

시비를 논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義가 아닌 것을 말하는 이를 배척하여 비록 존귀한 사람이더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왕왕 큰 소리로 꺾어 넘어뜨리면서 가슴에 남겨두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공경하고 승복하면서도 또한 감히 원망하지 않았다. ... 사람들이 左道에 현혹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으며 선비들이 邪道를 좇는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만년에 『坎離錄』을 지었는데, 10여개의 조목으로 나누어 주장을 드러내니, 옛날을 흠모하고 오늘을 안타까워하는 뜻을 실은 것이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은 世教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⁵⁾

여기에 다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앞부분에 그의 강직하고도 호방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를 여럿 말하였다. 예를 들면, 평상시 거할 때도 반드시

5) 『경옥집, 附錄』, 「遺事」 “至其辯論是非, 斥人非義, 則雖尊貴大人, 不少撓屈, 往往大言折倒, 而亦未嘗留諸胸次焉, 人以此敬服, 而亦不敢怨. ... 憫衆人之惑於左道, 憤士子之趨於邪逕. 晚著坎離錄, 分十餘條爲之說, 以寓慕古傷今之意, 見者以爲有補於世教焉.”

의관을 정제하고서 앉아 어디에 기대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나, 어느 물가에서 고기가 사람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 이후 다시는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먹지 않았거나, 누가 수입이 많은 큰 고을에 부임하라고 하자 매우 비루하게 여기며 다시 왕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그가 원칙에 입각한 꼬장꼬장한 선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인물의 사망 후에 그를 기리며 쓴 行狀류의 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을 골라 쓰거나 강조하거나 했을 것이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인물됨과 생활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된다.

뒷부분에서는 당시 세속에서 儒學이 아닌 다른 이단 사설이 유행하고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보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분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가, 邪道를 좇는 세상의 풍조를 우려하여 지었다는 『坎離錄』은 현재 『경옥집』에 실려 있지 않아 그 실체를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을 본 이들은 이것이 世教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고 했으니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그가 가진 평소의 이런 성격과 신념을 스스로 간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세상 풍조를 고치기 위하여 儒家의 덕목을 철저히 드러내는 글을 지었음을 미루어 알겠다.

그의 평생의 大概, 성품에 대한 遺事 내용, 그가 했던 활동에 대한 내용 등을 역으로 이용해 보면 그의 교육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우선, 그는 학문의 대상을 儒家의 義理之學으로 한정하였다.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단 사설이라 하며 매우 극렬히 반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쉽게 증명된다.

그는 한결같이 조정을 멀리하며 벼슬길을 마다했으면서도 山莊에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마을에서 교화에 관련된 일들은 발 벗고 나섰다. 그가 살던 17세기는 임병양란 이후에 향촌 사회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유교와 선비들의 무능이 드러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특별히 그는 향촌 사회 내

에서의 교육에 대해 강조하였다. 마을의 사족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힘을 합하여 서당을 만들고 이것을 운영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선비를 양성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역설하였다. 沱陽書堂을 지어 그 운영에 깊이 간여한 점 등이 그의 문집에 나타난다.⁶⁾ 선비라면 당연히 학문에 힘써야 하고, 그런 선비들이 향촌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확연히 나타난다.

그는 유학을 장려하는 사안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까지 옮겼다. 그는 향촌의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당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힘씀으로써 儒家적 덕목의 구현을 늘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가 서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서원설」 같은 글을 남기며, 각 글에서 유가의 본원을 말하고 그 원뜻을 회복할 것을 역설한 것은 이러한 그의 생각이나 삶의 궤적과 함께 한다.

그의 문집으로는, 4권으로 된 『경옥집』과 1권으로 된 『경옥속집』이 있다. 경옥집 1권에 실린 상당히 많은 시들은 주변의 조그마한 것에서 시상을 떠올려 그것을 질박하게 그렸다.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듯 하나 이 글의 중심은 그의 문학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후고로 돌린다. 서원 관련 저작으로는, 「鏡光書院三賢請贈疏」, 「鳳覽書院請額疏」, 「孤山書院奉安文」, 「鏡光書院改題時祭文」, 「青城書院移建奉安文」 등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그가 서원을 둘러싸고 활동했던 일면을 볼 수 있다. 또한 「書院說」, 「沱陽書堂重修記」 등과 「儒疏說」, 「名分說」 등을 통해 그의 서원관을 엿볼 수 있다.

6) 정순우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17세기 서당의 건립과 운영 실태를 말하면서 향촌 내 사족들끼리 연합하여 서당을 설립, 운영한 예로 이보의 경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앞의 논문, 42~49면.

2) 이보의 서원교육관

이보는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서원에 대한 생각, 당시 서원을 둘러싼 움직임과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書院說」을 지었다. 이 글은 퇴계와 그 학맥에 속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서원관련 논의를 밝히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소개의 의미를 겸하여 전문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서원은 五代 南唐에서 시작되었다. 대개 선비들이 책을 읽고 강학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송조에는 이것을 인하여 천하에 4개의 큰 서원이 있었다. 응천, 악록, 송양, 백록동 서원이 이것이다. 주자께서 이미 백록동 서원 규약을 만드시고 또 서원 곁에서 당나라 이발을 제사하셨으니 대개 선비들을 격려하고 흥기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서원에서 현인들을 제사하는 일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송나라 말에 이르자 천하에 서원이 많아져 삼백 여개에 이르렀다. 원명의 사이에는 이루다 셀 수가 없었으며 모두 선현을 제사하였다. 그렇다면 서원을 세운 뜻은 강독이 중요하고 현인을 제사하는 것은 다음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서원을 설립한 후에 사당을 세웠는데 그 후에는 사당을 세우고 난 후에 서원을 세운다. 이로부터 현인을 제사하는 것을 중시하고 강독은 그 다음이 되었다. 그렇지만 둘 다 강독하고 흥기하는 방법이니 그 경중의 선후에는 해될 것이 없다.

일찍이 듣기를 만력 년간에 노나라의 아는 사람이 왜적에게 노략질을 당해 도망하여 절강부에 이르렀다가 무이산 주자서원을 보았다고 한다. 洞主와 主師가 자리하고 학도 수백 명이 매일 아침 일찍 관복을 갖추고 뜰에 나누어 서서 서로 읊하고는 차례로 강하는 자리에 올라 하루가 다하도록 강론하고 저녁이 되면 또 뜰에 나누어 서로 읊하고 녹명(3장7)을 부르고는 파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강독하는 법이 그 때에도 옛날과 같았다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서원을 세운 것은 신라, 고려의 세상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조선에 이르러 신재 주세붕이 풍기군수가 되어 문성공의 사당을 백운동에 만들고 이것을 인하여 서원을 건립하고는 소수서원이라 불러 선비들을 모아 강독하는 땅으

7) 鹿鳴은 『시경』 小雅에 있는 편명으로, 천자가 여러 신하를 거느릴 때를 노래한 것이다. 당나라에서는 長吏가 군현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시를 읊음으로써 앞길을 축복하였다 한다.

로 삼았다. 퇴계 선생이 이어서 이 고을 군수가 되어 방백에게 글을 올려 조정
에 청함으로써 사액을 받고 서적도 하사받았다. 강독하고 격려하는 방법도 한결
같이 백록동의 예에 따랐으니 이것이 서원의 시작이다.

이로부터 州縣의 선비들이 다투어 서원을 건립하고 현인을 제사하여 큰 마을
은 많게는 수십여 개에 이르렀고 적어도 서너 곳을 밀들지 않았다. 작은 마을에
도 서원을 세우지 않은 곳이 없다. 혹은 겹쳐서 세운 곳도 있다. 세우지 않은 땅
은 바닷가나 궁벽한 산골, 멀리 황망한 곳 약간의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 온 나
라 안에 書院이라, 精舍라, 里社라 하는 것이 송말의 수에 밀들지 않는다. 그
러나 그 법은 한결같이 현인을 제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독하는 데에는
뜻을 두지 않는다. 간혹 선비를 모아 학문을 권하는 곳이 있다 해도 과거시험을
위한 제술공부나 구두 떼는 것을 깨우치는 것에 불과하다가 지금은 또한 거의
없어져 소문이 들리지 않으니, 감히 의리를 강구하고 학문을 성취하며 인재를
교육하는 도를 바랄 수 있겠는가. 대저 처음에 서원을 세운 본 뜻이 아니다. 아
야! 서원을 세움이 어찌 진실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겠는가. 8)

내용에 따라 넷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 단락은 중국 서원의 시작을 말하

8) 『경옥집(景玉集)』 3권, 「書院說」 “書院始於五季南唐, 蓋爲士子讀書講學而設也. 宋朝因之, 天下有四大書院, 應天嶽麓嵩陽白鹿洞是也. 朱夫子既立鹿洞院規, 又祠唐李渤於院傍, 蓋爲士子激勸興起之方也. 書院之祀賢始此. 及至宋末, 天下書院多至三百餘所, 逮元明之間, 則不可勝計, 而皆祀先賢, 然則設院之意講讀爲重, 而祠賢次之也. 故當初則設院而後立祠, 其後則立祠而後設院. 自是以來, 祠賢爲重, 而講讀次之也. 然而俱是講讀興勸之方, 則不害其輕重之先後也. 嘗聞萬曆間有魯認者, 爲倭賊所掠, 逃至浙江府, 觀武夷山朱子書院, 洞主主師席, 學徒數百人, 每日早朝具官服, 分庭相揖, 以次陞講席, 終日講論, 至暮, 又分庭相揖, 歌鹿鳴三章而罷云. 然則中國講讀之法, 其時猶古也, 不知今, 則何如. 我東設院, 羅麗之世無聞焉, 至本朝周慎齋世鵬爲豐基守, 勅安文成公祠於白雲洞, 因爲建院, 號曰紹修書院, 以爲聚士講讀之地. 退溪先生繼守是郡, 上書方伯, 請于朝, 頒號額賜書籍. 其講讀激勸之方, 一遵鹿洞, 此書院之權輿也. 自是之後, 州縣士子, 爭自建院祀賢, 大邑則多至十餘所, 小不下四三所, 至於小邑, 亦無不設, 而或有重設之處. 其不設之地, 不過海濱窮峽遐裔荒漠若干之邑. 通國內, 曰書院, 曰精舍, 曰里社者, 不下於宋末之多. 而其法一以祀賢爲重, 不以講讀爲意, 間有聚士勸學之處, 而不過科場製述蒙學句讀, 而今亦全廢無聞焉. 其敢望講究義理·成就學問·教養人才之道乎. 夫非當初設院之本意也. 吁! 書院之設, 豈端使然哉.”

고, 그 때에는 학문 講讀을 우선하고 성현 奉祀는 다음으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둘 다 흥기하는 방법이니' 어느 것을 더 중히 하고 어느 것을 다음으로 하는가의 여부는 크게 해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이 유자들을 '興起'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단락에서는 만력 년간에 노나라 사람이 무이산 주자서원을 돌아본 이야기를 썼다. 당시 중국의 강독하는 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서로 뜰에 서서 읊하고 각기 정한 장소에 들어가 강독하였다가 저녁이면 다시금 서로 읊하고 녹명3장을 부르고 파하였다는 형식은 이후 우리나라 서원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으므로 잘 보아들 필요가 있다.

셋째 단락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우리나라로 바꾸었다. 우리나라 서원의 시작을 설명한 부분이다. 주세붕이 건립하고 퇴계가 확고히 틀을 구축한 것을 간략히 썼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보 당시 서원의 현황을 쓴 것이다. 서원이 濫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또 그런 서원에서 강독에는 힘쓰지 않고 있는 점 등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서원을 세움이 어찌 진실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겠는가' 라며 글을 마침으로써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다.

이 「書院說」의 내용은 이보의 서원교육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서원관련 생각들을 좀 더 깊이 考究해 보자.

이보가 서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이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서원은 講學을 위해 처음 세워진 것임을 눌러 이야기하였다. 옛 중국에서는 백록동 서원 규약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선비들을 이끌었다. 이들 선비들을 격려하고 흥기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先賢 중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분을 찾아 院祠에 봉향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원을 먼저 세운 후에 사당을 세웠다'는 말이다. 그러나 '둘 다 강독하고

흥기하는 방법이니 그 경중의 선후에는 해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즉 서원의 주 기능에 관해서 이보는, '선비를 흥기'하는 원칙만 바뀌지 않는 한 祭享과 講學 둘의 선후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제향과 강학의 선후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내는 약간 다름을 이후 단락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무이산 주자서원의 모습이나, 셋째 단락에서 말한 우리나라 소수서원의 건립과 정착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한결같이 講學, 선비의 학문자세, 강독태도와 격려 등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앞 단락을 받아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강학과 제향 중 특별히 講學을 은연중에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서원 건립의 목적이며 참 시작임을 보여준 것이다. 서원은 어디까지나 교육 기관이고, 그 교육 기관에서 할 일은 물론 어디까지나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儒學의 기본 理學이라는 것이 이보의 생각이었다.

선비들이 院祀에 봉향한 분을 모범으로 삼아 학문적으로 흥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내에서만 祭享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사람을 대표하여 「鏡光書院三賢請贈疏」를 써서 배상지, 이종준, 장홍효의 추증을 구하는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다. 일반적인 疏와 같은 투로,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儒賢을 숭상하는 것은 나라에서 반드시 힘써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신 등이 적이 생각하는, 국가에서 節義를 높이고 장려하며 忠賢을 드러내어 드날림은 다만 이미 백골이 된 사람의 아득한 魂을 위로함만이 아닙니다. 진실로 人臣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고 선악을 勸懲하는 것이 모두 이런 일에 관계됩니다'9)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모범'을 제시하여 教化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鳳覽書院請額疏」에서도 '모두 사액하는 은전을 입은 것은

9) 『경옥집』 2권, 「鏡光書院三賢請贈疏」“(臣)等竊伏念, 國家之所以崇獎節義顯揚忠賢, 非但榮其既骨之人慰此冥漠之魂也, 誠以人臣之防範善惡之勸懲, 皆係於此.”

正學을 높이며 儒賢을 드러내어 한 세대에 유교의 교화를 떨치고 만세의 표준이 되는 자를 세웠기 때문이니...¹⁰⁾’라고 하였다.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봉향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보며 흥기하며 학문에 힘쓰게 함으로써 교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주안점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부분이다.

「서원설」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 당시는 이보의 이런 기본적인 서원교육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단락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서원의濫設 문제이다. 아주 궁벽한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면 마을마다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물론이요 같은 고장에서 수십여 개 씩 서원을 세우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안동이라는 한 지역에 남아 있는 서원을 조사하더라도 鏡光書院, 魯林書院 등 10여개가 훨씬 넘는다. 의성이나 영천 등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의 서원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서원의 활동이 한참 활성화될 때도 아니고 대원군 집권 시절 강력한 훼손을 겪은 후 1세기가 더 지난 지금도 이렇다. 그렇다면 이보가 살았던 당시는 어떠했는지,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만 하다. 서원의 설립은 설립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각종 경제적인 부분, 권력관계 등 온갖 문제와 함께 연루되어 있는데 서원이 한 고장에 수십여 개씩 있다면 그 혼란은 자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보가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점은, 서원 등이 이렇듯 많은데도 이들이 한결같이 올바른 것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로 보면 書院, 精舍 등이 송나라 말기 그것들의 수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데도, 이들이 ‘한결같이 현인을 제사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독하는 데에는 뜻을 두지 않고’ 있었다.

10) 『경옥속집』, 「鳳覽書院請額疏」 “咸蒙宣額之典, 其所以尊崇正學表章儒賢, 振一代之儒教立萬世之表準者…”

첫 단락에서는 제사나 강학의 선후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왜인가? 각 서원들이 경중이나 선후를 따질 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향에만 힘쓰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원이 享祀의 기능에만 치우쳤다면, 이것은 이름은 書院이로되 처음부터 제향을 위해 설립된 祠宇와 전혀 다름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아주 일부 서원에서 '간혹 선비를 모아 학문을 권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시험을 위한 제술공부나 구두 떼는 것을 깨우쳐주는 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래서야 '감히 의리를 강구하고 학문을 성취하며 인재를 교육하는 도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것은 '처음에 서원은 세운 본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즉 이보는 서원에서 하는 교육 내용, 修學 내용은 科擧를 위한 製述공부에 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講學하되, 내용은 반드시 義理之學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요컨대 이보는 「書院說」에서, 서원을 본래 세운 목적은 講學에 있음을 말하고, 先儒를 모셔 祭享의 일을 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선비들을 권하고 흥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전제하였다. 선비를 학문적으로 흥기시키는 일만 한다면 제향에 조금 더 중점을 두더라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講學의 중요성을 깊이 강조하였다. 또한 선비들이 이 서원을 통해 학문을 익히되 이때 익히는 내용은 반드시 義理之學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보는 향촌 教化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教化를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서원에 관한 그의 시각과도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교화를 위해 사액을 청하고, 세속에서 유교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邪道가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붓을 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는 시정되지 않고 악화만 되어 갔고 邪道로 쏠리는 대중은 늘어만 갔던 것이다. 발 벗고 나서야 할 국가와 조정에서는 오히려 名分도 없는 싸움만을 일삼으며 각 事案 마다 흔들리고

있었다. 「名分說」에서 이보는 이러한 국가·조정의 사정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움을 말하였었다. 이 글에서 그는 '명분의 폐해는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않은 데서 말미암고,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교화가 떨쳐지지 않은 데서 말미암으며'¹¹⁾ 라고 지적하며 教化가 떨쳐져야 함을 힘주어 주장하였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직시하고 고쳐 나가야 할 서원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만 일삼고 있었다. 서원의 정치적 참여가 그것이다.

이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원의 본래 존재목적은 천명하여 강학의 중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서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의견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이보가 남긴 「陔陽書堂重修記」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學宮은 聖朝 때에 가장 성행하였는데, 영남지방은 더욱 그러하여 영남보다 더 성행한 곳이 없으며, 永嘉지방은 더욱 성행하였다. 永嘉 지방 안에서도 學宮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크면 府校이고 작으면 서원이다. 精舍나 書堂 같은 것은 손가락으로 이루다 셀 수 없다. 우리 마을은 구석 한쪽이라 경상좌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책 상자를 짊어지고 저 곳에서 학문을 일삼으려 해도 그 기세로 능히 할 수 없다. 오늘 學宮들 사이에는 학문을 닦는 실질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고 한갓 論議를 하는 말단의 것만 숭상하여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문득 요란스레 다투어 변론이 일어나 밀고 빠지며 따라간다. 선비들 중에 조금이라도 삼감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문을 바라보고 도리어 걸어가버리니 어디가 학문을 닦기에 족하다 하겠는가.¹²⁾

11) 『景玉集』 2권, 「名分說」, “名分之弊由於民志之不定, 民志之不定由於教化之不振…”

12) 『景玉集』 3권, 「陔(沔)陽書堂重修記」, “吾東方學宮之盛, 莫盛於聖朝, 而嶺南爲尤盛, 莫盛於嶺南, 而永嘉爲尤盛. 永嘉之中, 凡以學宮名者, 大而府校, 小而書院, 若精舍書堂者, 指不勝僂, 而吾縣僻在一隅, 道里相懸, 雖欲日鼓篋從事於彼, 而勢有所不能且也. 今之學宮之間, 殊不聞有講學之實, 而徒尙論議之末, 一有不合, 便曉曉然爭辨起, 而擠陷隨之. 士之稍知自慎者, 必望門而却步矣, 何肄業之足云也.”

전국에서 가장 서원이 많은 이 지방이건만 실제로 학문을 할 만한 곳이 없음을 우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서원들이 학문에는 힘쓰지 않고 ‘말단만을 숭상하여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요란스레 일어나 변론하는 일’에만 힘쓴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서원은 講學·修練하는 장소 이어야지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두고 변론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들어 지방 사람들이 서원을 근거지로 하여 말단의 사안들에 관해 각종 정치적 논쟁이나 일삼고 있기 때문에 서원의 본 기능인 講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재야의 정치비평인 淸議에만 힘썼다는 점을 비판한 말이다. 「儒疏說」에서도 이 점에 대해 힘주어 말하였다.

대저 선비의 상소는 비록 충의로운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초야의 일의 실체는 조정의 것과 다르니 만약 일이 斯文에 관계된 것이거나 국가의 興亡盛衰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어찌 한 政令과 한 施行의 잘못을 가지고 일마다 번거롭게 하여 자리에서 나와 제기를 뛰어넘는 혐의를 취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 말한 것에 추호라도 한쪽에 치우친 사사로움이 있다면 그 공을 계획하고 이익을 도모하며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기망한 죄가 크다. 어찌 士論이라 할 수 있겠는가.¹³⁾

조정의 일과 각종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당파의 이해에 따라 바뀐 예를 늘어놓은 후에 마무리하면서 말한 내용이다. 이보는, 선비는 어디까지나 학문에 힘써야 하는 존재임을 천명하였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선비는 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만약 선비가 나서야 하는 경우라면 두

13) 『景玉集』 2권, 「儒疏說」 “大抵儒疏，雖云出於忠義之激發，而草野事體，與臺府異，若非事係斯文，及國家所以興亡者，則何可以一政令一舉措之失，而隨事煩聒，以取出位越俎之嫌哉。況其所言若有一毫偏係之私，則其計功謀利欺君罔上之罪，大矣，何可謂之士論乎。”

가지 뿐이라고 예를 들었다. 하나는 斯文에 관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일이다. 이것이 아닌 말단의 것에 힘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선비들이 서원에 淸議에 힘쓸 것이 아니라 爲己之學, 義理之學에 힘써야 한다는, 평소의 서원교육관과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서원이 정치적 싸움의 거점이 되었던 때이니만큼 이러한 의견 제시는 당시 士林 사회의 동향과 어지러움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3. 이보 서원교육관의 시대적 의미

알다시피 서원은 종종 명종 연간에 사림의 講學·藏修處로 세워졌다. 이 때 퇴계 등의 인물이 서원의 보급과 확산에 상당한 힘을 쏟았다. 퇴계는 주자가 서원교육의 기본 과제로 제시했던 '백록동규'를 본 떠 『聖學十圖』 제 5圖를 만들고, 「이산서원원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서원의 설립과 운영, 보급 등에 힘을 기울였다.¹⁴⁾ 퇴계의 이러한 활동은 중앙정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현실과 거리를 유지하며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爲己之學에 힘쓰며 道學을 공부하며 義理를 익히게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¹⁵⁾

이때 이후 명종 말 문정왕후가 죽고 선조가 서는 등의 과정에서 사림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여 숙종 전까지 약 100여 년간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존재했다. 이들의 활동 근거지였던 서원이 이 때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된다. 숙종 이전까지 설립된 서원은 약 150여개였다가 숙종 대에 들어서면

14) 이 점에 관해서는 금장태, 『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서울대출판부, 2001), 109~126면에 자세하다.

15) 정만조는 「이산원규」의 내용을 분석하여, 퇴계 서원관을 '서원의 주체인 사림 스스로의 분발과 흥기에 의한 위기지학 위주의 공부와, 그것을 躬行心得하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리한 바 있다. 이것은 퇴계의 서원관을 한 마디로 잘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조선시대 서원연구』, 60~67면.)

공식 통계로 400여개로 파악된다. 즉 숙종 代(1675~1720)에 들어서면서 각 봉당들의 공존체계가 무너지고 서로 대립이 격심해지는 가운데 서원제도가 문란해졌다.¹⁶⁾ 이때 서원들은 제향 기능 위주의 祠宇와 차이가 없어지고, 한 지역에 서원 수십 개가 나란히 함께 있는 濫設의 경향이 생겼던 것이다. 영조 대에 들어서면 그 정도가 심해져 결국 영조 17년에 祠院 樞軸 작업이 있었고 그 후 고종 辛未년에 전국적 일제 정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퇴계학파의 인물들은 스승인 퇴계의 서원관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시대 변화와 이에 따른 서원 관련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나름의 대응방식을 모색하였다. 그들이 남긴 저작과 활동 등을 통해 대략 엿볼 수 있다.

퇴계의 직전 제자 寒岡 鄭述(1543~1620)는 「院規(爲道東)」을 지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승인 퇴계가 지은 「伊山院規」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강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강제 규범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즉 享祀를 엄숙히 하여 마음과 행동을 다잡을 것을 말하면서, '만약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문서에 기록해 두되 이유가 있건 없건 모두 기록하여 나중에 面責하기를 기다린다. 일곱 번에 이르도록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축출한다.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섯 번에 축출한다'¹⁷⁾라고 함으로써 강제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세대인 訥隱 李光庭(1674~1756)에 이르면 이런 강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訥隱集』6권의 「居齋節目」이나 「三溪書院居齋勸諭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성을 강조 하던 스승 퇴계에서 벗어나 이런 강제성을 서원 교육에 도입하게 된 것은 앞 단락에서 말한 서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16) 서원의 설립과 정치변화에 따른 증감에 관해서는 이수환, 『조선후기서원연구』(일조각, 2001), 11~41면을 참조할 만 하다.

17) 『寒岡集, 續集』 4권, 「院規(爲道東)」 “謹享祀 항목 중- 如有不參之員, 書于籍, 有故無故竝錄之, 以待後會面責. 至七度不參者, 乃黜之. 無故不參者, 五度而黜之.”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과는 약간 다른 축의 대응방식을 보인 이들도 많았다. 즉 영남 지방은 우리나라 儒學의 原流요 祖宗임을 말하면서, 현재 사림의 잘못된 흐름을 지적하고 반성하여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하는 데에 힘을 쓴 사람들이 그들이다. 정만조¹⁸⁾는 이러한 대응 방식을 보인 사람들로 存齋 李徽逸(1619~1672)이나 密庵 李裁(1657~1730)를 든 바 있다.

이런 퇴계학파의 서원관련 활동을 생각하며, 경옥 이보의 위치를 생각해 봄 직하다. 앞서 보였던 경옥 이보의 서원교육 관련 의견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그가 살았던 시대와 맞물려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보는 1629년에 태어나 1710년에 죽었으니 그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전반이다. 이때는 인조후반기부터 숙종 중반기까지이니, 서원의 변화로 말하자면 서원이 제향 기능 위주로 바뀌고 이곳저곳에 함부로 중첩되어 서원이 세워지는 일이 진행될 때이다. 이보는 기존 서원이 제향기능 위주로 변해가고 또한 새로 세워지는 서원 역시 무분별하게 같은 지역에 함부로 세워지는 것을 직시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서원관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원이 본래 세워진 이유를 강조하고, 서원에서 힘써야 할 바를 논리 정연하게 말하였던 것이다.

같은 시기 퇴계학파의 인물들은 서원의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대응방법을 모색하며 활동해 나갔다. 말하였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본래의 목적을 되새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를 위한 어떤 규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보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다.

18) 정만조, 앞의 논문, 194~198면.

이보의 서원교육관은 李徽逸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휘일은 「英山書院告諭諸生文」에서, ‘대저 서원을 만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先賢을 높이고 講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선현을 높이지 않는다면 감동하여 떨쳐 일어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없게 되며, 학문을 익히지 않으면 格物致知하여 성취하는 바가 없으니, 서원을 세움이 중요하지 않으랴¹⁹⁾’ 하며, 상당히 길고 강개한 어투로 서원이 남설되는 시기에 서원 본래의 취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잘못되어 가는 사림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시기 같은 지방에서 활약했던 洪汝河의 경우도 이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중국의 서원에서는 講學을 위주로 하고 奉祀는 義理上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원마다 祭享을 위주로 하면서 양사는 뒷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⁰⁾ 그러면서 서원 남설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으나, 서원 등에 관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先賢奉祀에 지나치게 치우친 점에서 찾았다.

이보와 홍여하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본래 서원을 창설하여 운영하던 때를 돌아보고 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서원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서원의 올바른 복원을 천명한 점에서 같다. 서원에 관하여 현실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도 비슷하다. 서원 남설이나 과거 준비에 치우친 점 등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다만 홍여하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奉祀의 문제로 압축하며 訂正을 주장하였다면, 이보의 경우 보다 원론적으로 서원 본래의 모습을 강조하며 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 『存齋集』 4권, 「英山書院告諭諸生文」 “夫書院之作, 何爲也. 爲尊賢講學而作也. 賢不尊則無以感發興起而有所準則焉, 學不講則無以格物窮理而有所成就焉, 書院之設, 顧不重歟.”

20) 『木齋集』 5권, 「咸寧書院立約文」 “後世學宮之血食 蓋以義起 然非先王之制禮也是以中國書院 猶倣此意 聘名儒聚 學徒 日夜講通 其中或建院聚書 亭祀則否焉 或亭訖講通 皆立限式 我國則不然 諸處書院 率多以祭亭爲重 其視養士勸學第二件事.”

앞서 정만조는 퇴계학파의 서원교육관을 살피면서 18세기의 예로 퇴계학맥에 속하는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들어 말하였었는데, 경옥 이보 역시 존재 이휘일의 주장·대응방식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의 삶이 邪學의 퇴치와 儒學의 德目 회복, 敎學 진흥을 위해 타협 없이 힘쓴 삶이었으므로, 그의 서원 교육관은 주장과 실천이 함께 간 삶이었다는 점에서 평가해 줄 만 하다. 그러나 이미 서원 관련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는 근본 정신 회복을 말로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이었다. 그러므로 이휘일의 주장과 행동을 서원의 위기에 대한 '소극적 방법'이었다고 정리한 정만조의 평가를 이보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²¹⁾

4. 나가며

이상 경옥 이보의 삶과 그의 서원교육관련 생각을 그가 남긴 글 「서원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보는 눈에 띄는 업적을 남겼거나, 당시 嶠南 지방의 중요 인물이었거나, 쟁쟁한 집안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었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보를 들어 그의 서원관을 살핀 것은, 우선은 퇴계를 제외하면 퇴계학맥에 속하는 각 인물들의 서원관에 대해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성과가 적다는 이유에서였고, 또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인 동향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경옥 이보는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을 살았던 인물이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경쟁하듯이 서원이 濫設되고, 각 서원에서 講學의 기능은 도외시한 祭享에만 힘을 쓰며, 또한 서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과거를 치르기 위한 입시기관의 역할을 하듯 하였다. 이러한 때에 이보는 邪道를

21) 정만조, 앞의 논문, 194~197면.

배척하고 教化를 강조함은 물론, 본래 서원을 세웠던 목적과 운영 모습을 다시금 밝히 보임으로써 당시 서원 관련 일련의 현상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런 비판을 통해서 사람이 반성하여 서원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런 이보의 서원관은 당시에 드러난 서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를 너무 간단히 다루었거나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그의 서원관은 존재 이휘일 등 여러 사람들과 같은 태도였다. 존재 등의 서원관과 현실 대응을 다루면서 경옥 등의 인물도 함께 다룬다면 이 시기 서원 관련 문제에 대한 士類의 대응방식의 한 면을 보다 명확히,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말하였듯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퇴계의 서원관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였다. 때문에 그 외에 수십, 수백명에 달하는 퇴계학파의 서원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거나 불충분한 지경이다. 또한 영남퇴계학파와는 약간 궤를 달리 하는 기호학파 등의 서원관 등도 이와 함께 비교, 추출한다면 서원관련 논의가 더욱 풍부해 질뿐더러 서원 이외 그들의 정치 입지·학문 태도의 同異점 등에 관해서도 상당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일 일이다.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 『경옥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퇴계학자료총서』 40권.
강현구, 「경옥 이보의 삶과 시」, 『안동한문학논집』 8집, 안동한문학회, 2003.
금장태, 『성학십도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출판부, 2001.
김명균, 「늘은 이광정의 학풍과 시세계」,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이범직, 「조선전기 서원의 교육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8.
이수환, 『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2001.
정만조, 「퇴계학파의 서원(교육)론」, 『남명학연구』 9집, 경상대 남명학 연구소
1999.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정순우, 「18세기 서당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논문.

Abstract

The thinking about education in a lecture hall of
KyoungOk-Lee Bo and the meaning of that times

Seo, Shin-Hye

This abstract has the purposes that grasped the Lee Bo(1629~1710)'s life and the thinking about education and explained the tendency about education in a lecture hall at that time.

Treatises on the thinking about education in a lecture hall is many, but most of thesis is thinking of education of I Hwang. This treatise illustrated the thinking about education of I Bo, unknown scholar in Young Nam. He isn't a model scholar in Young Nam, but his thinking reflected the thinking of ordinary scholars in Young Nam.

He was interested in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Confucian and also he got into action. He wrote the 'Seowonseol' based on his long mind about education. He said that the purpose established the lecture hall is that scholars had to devote themselves to their studies. They performed the sacrificial rite to respectable scholars, but it is based on education. He thought what performed the sacrificial rite to respectable scholars is good if it would be devote scholars to their studies. And he emphasised that they learned through teaching in the lecture hall and the teaching is must what is about the honor of Confucianism.

He objected to the lecture hall taking part in the nation government. He thought that the lecture hall is not place where they discussed the political problem but it is place where they only study.

In the end stage of MyoungJoung, the private school factions took the leadership of nation. They established the lecture hall throughout the nation. This raise many problems, and then it provoked the people to rebellion. As a consequence of the corruption of scholars, someone insisted to abolish the lecture hall and someone insisted to make a law which could limit the arrogance of scholars. Lee Hwooy-il, the prior research worker, insisted the former. The thinking about education in the lecture hall of I Bo is same the Mr. Lee's thinking. But the matter threatened serious proportions. So his thinking was judged passive way on crisis of the lecture hall.

Key Word

Lee Bo, the thinking about education in a lecture hall, 「Seowonseol」, Lee Hwooy
sacrificial rite, the school of Toegye